

## 영어교육에서 텍스트의 의미: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김길중  
(서울대학교)

---

Kim, Kil-Joong. (2003). The significance of text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how and what are we to teach in the secondary-school pedagogy of reading in English.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6, 33-44.

This short essay is a slightly modified version of a presentation read at the annual Institute seminar held at SNU on the 5th of December to exchange views on the function of reading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Korea. It begins with the discussion of a need on the part of policy makers of English teaching to reassess and revise the dominantly pragmatic and instrumentalist philosophy particularly working in the pedagogy of reading in English. According to the revisionist review of the present writer, the guiding spirit of the 4-skill orientation has so far tended to overvalue the linguistic and communicative functions (or 'grammar' as is termed here to contrast with the 'text' that follows) at the cost of the human or readerly values carried by signifying textuality of the reading material. Language should and is fated to reflect and realize the lived experience of concrete and individualized people and society. English is a natural and cultural language that embraces all these cultural resourcefulness and expressiveness before it is a foreign language. Strategies of reading pedagogy ought to reflect this fundamental as well as human or value-oriented aspect of language despite the limited level of the language on the part of its learners.

---

## I. 문제의식

본고는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읽기 부문에 관한 근본 의의가 무엇이고 어떤 전망을 가지는가를 반성적으로 개괄하여 살펴본 것이다. ‘읽기’라는 기능적 용어가 자연스럽게 환기하는 개념은 소위 말의 4기능 중 하나, 곧, 듣기, 말하기, 쓰기와 아울러 완성되는 언어기능 일환으로서의 자격일 것이다. 모국어 교육이라도 저급한 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하겠지만, 특히 영어와 같은 외국어교육에서는 언어의 기능을 이렇게 고르게 넷으로 등분하는 현실적 편의가 클 것이다. 언어의 기본 기능에 속달되지 않은 채 그 말을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의문을 던진다. 중등학교의 영어교육에서 이 ‘읽기’ 부문이 갖는 진정한 의의가 4기능으로 수렴되는 단순한 언어기능에 그치는 것일까, 나아가 단순한 외국어습득 차원을 넘어서는 또 다른 교육과제는 없는가, 읽기는 보편적 정신활동 아닌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영어로 읽는 것도 모국어로 읽는 심도에 육박하여야 하지 않을까, 이 인식이 영어 읽기교육에 좀더 의식적으로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외국어 기능습득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균분된 4기능 위주의 접근은 수정하여야 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문제가 깊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고는 간주한다. 외국어중에서도 특히 영어는 이미 거국적 역점 학과목으로 지목된지 오래고 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외국어교육이라는 개념들보다 모국어를 포함하는 언어교육의 일환임을 그 교육목표가 반영할 법하다. 영어교육도 과거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일반 시민교육의 목표에 의식적으로 부응하여야 하고 필경 어문교육의 공동목표라 할만한 것을 상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중등학교 영어교육의 수준이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한계 내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 ‘읽기’ 부문의 교육은 원론적으로 일반 독서교육, 문학교육과 같은 인문적 척도를 일정부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인문적 척도를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읽기 교육 자료’ 대신 ‘텍스트’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중심 과제는 중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이 ‘텍스트’의 의의를 반성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그 방향의 논의가 추상적 수준에서 뒤따를 것이지만, 제목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고 꼬집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시도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색하는 선에서 만족하고자 한다.

## II. 어법과 텍스트

외국어교육에 관한 이론의 원천인 언어학, 심리학 등은 인간행동의 이해를 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매우 현대적인 학문이다. 언어의 습득 혹은 학습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과 책략들은 사회적 인간 혹은 인간의 사회성을 탐구하는 응용학문의 일환으로서, 마땅히 상응하는 합리성 담론에 의존하고 있다. 과학적 합리주의가 현대 사회의 운용을 그 기반에서 포괄하는 원리인 만큼, 현대 언어교육이론의 합리성 담론은 그 나름의 역사적 산물로서 일종의 필연의 추세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대사회 이래의 과학적 합리주의 이념의 전제(專制)에 대한 회의가 그 정점과 중심부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현상도 있다. 여성, 환경, 생명, 탈중심, 문화 등과 같은 담론의 대두를 그 반작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교육은 일반 교육실천의 방대한 프로그램에서 매우 특수한 일각을 점하고 있지만, 그 교육의 과제인 언어는 결국 해당 문화의 총체적 반영인 까닭에 그 만한 정도의 새로운 수정주의적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쟁점은 의당 여럿일 것이다. 그 중 이 글의 관심인 영어교육에서 읽기 과제와 연관하여 제기하는 문제는 이와 같다. 언어는 두 가지 차원 혹은 위상에서 그 의미와 형식이 실현되는데, 하나는 언어 내적 체계를 위시하여 화용과 소통의 기능과 기제를 포섭하는 포괄적 의미의 어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와 문화의 문맥 속에서 의미를 창출 내지 실현하는 텍스트이다. 어법은 문장과 담화의 체계와 기능에 관한 형식적 접근 일체이고 텍스트는 언어가 구현하는 현실 세계의 형상이요 의식이요 실현이다. 본고가 제기하는 기본 쟁점은 이와 같이 양립하는 언어의 두 위상 가운데, 어법은 수미일관한 체계를 지향하여 과학적 합리주의에 훨씬 친화적인 토대에서 언어의 기본 체계와 기능에 관한 학습 목표를 제공하여온 반면에, 텍스트 차원의 국면은 영어교육에서 상대적으로 경원시 되었다는 점이다.

영어의 기본 어법에 숙련되는 성취가 그것만으로 지난한 과제인 만큼, 영어가 바로 사회요 문화요 세계라는 사실을 환기할 여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텍스트는 역사, 전통, 예술, 관행, 제도, 인습, 의식, 또 이에 반응, 도전하고 이를 수용, 재창조하는 복잡다기한 인간의 표현활동 등을 배제 없이 포괄하는 총체적 국면이다. 이것이야 말로 언어 본연의 기능이요 실현이면서도, 언어교육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비추이는 것이다. 언어생활의 이러한 차원, 곧 분석적 내지 기능적 접근의 대상을 넘어서는, 삶의 총체적 문화적 표현이며 또 그 수용의 장(場)인 그런 차원을 의식하는 언어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이다. 외국어든 자국어든 특히 '읽기'교육의 핵심 쟁점은 이 '읽기'가 아주 낮은 단계의 학습을 뜻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와 같이 학습용이 아닌 살아있는 언어가 사회와 문화 속에서 가지는 본연의 위상에 관한 인식을 우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어교육 가운데에서도 외국어교육은 사리분별에 대한 능력을 갖춘 이후의 성장 단계에서 의식적으로 수행되는 학습이다. 외국어교육이 그 초동단계에서 언어의 체계 자체의 이해와 기본적인 소통기능에 관한 법칙성을 중심 척도로 삼아 수행됨은 당연하겠지만, 최종목표는 그 언어가 매개하고 또 스스로 지표가 되어 구현하는 이를테면 총체적 사회 의미 혹은 문화 의미를 실현하고 향유하는 역량일 것이다. 학습자는 모국어의 경우에 투사하고 비전하는 분별력을 갖추었으므로 잠재의식 속에서 모국어 외국어 불문하고 완전한 언어역량이 기약하는 비전을 가질 것이다. 영어 학습자의 경우는 학습을 위해 동원되는 에너지의 양과 집중도로 보아 더욱 그러할 것이다. 어법과 텍스트의 위상의 차이가 학습어와 자연어의 차이에 상응한다고 못 박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텍스트는 아무래도 언어사용의 유창함이 아니라 '해석의 역량'이 관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간 과장하여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다. 어법은 사람 아닌 말 위어가는 법이고 텍스트는 말 무대에서 사람 섞여 지내는 흔적이다. 사람이 무대에 들어서면 그 만큼을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이 사회내 존재이고 그의 활동이 문화라면, 텍스트는 그 중간에 위치하여 양방을 두루 가리키는 지표이다. 텍스트의 해석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문화가 포섭되는 것이다. 외국어 교육도 살아있는 말의 교육인 이상 궁극적으로 어법을 넘어서서 텍스트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의 왕성한 수요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영어사용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부응하는 형식으로 지속하여 확대 재생산된 것이다. 영어교육을 지원하고 계도하는 이론과 이슈의 창출에도 당연히 미국적 실용주의와 합리주의의 정신이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이 자임하고 자부하는 사명의식과 함께 뒷받침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영어교육의 현대적 국면은 전후 미국의 전문 영어교육가들이 대내적으로는 이민 온 외국출신 학생에게 또 대외적으로는 비영어권 지역의 영어학습자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개진되었다. 이 문제의식은 미국적 소명의식과 함께 확연히 '실용'적(전통적인 '교양' 혹은 '소양'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인 입장에 서서 관행을 수정하고 쇄신하는 것이었는데, 응용을 위한 도구적 기제는 언어학, 교육학, 발달심리학, 학습심리학 등이었다. 이들 '학문'(discipline)이 다양한 교육현장의 경험과 실험에 조응하면서 합리적 최적화 원칙에 따른 교육의 이론을 구축하고 방향에 관한 암시를 생산하였다.

유독 언어교육이론이나 나아가 일반 교육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새로운 언어교육의 비전은 전래의 문화, 전통, 소양, 인습 등의 관념에서 혁신적으로 벗어난 것이었다. 대체로, 언어관에서는 구조주의적이고, 학습심리학 입장에서는 행동주의적이고, 개별적 문화와 인습에 대해서는 보편주의적이고, 역사에 대해서는 기능주의적이었다. 결국은 두루 현대적 과학문화의 소산이므로 이것을 굳이 미국적이라 하기보다 현대문화의 전 세계적 추세라 할 만한 점도 있다. 그러나 예컨대 현대 영어교수법에 관한 중요한 초기 문건을 정리한 해롤드 앨런교수는 영국의 어프로치가 구조를 중시하는 미국과 달리 어휘에 열중한다 하고 있는데(Allen 1965, xi), 이것은 영미간의 상대적 차이일 수도 있고, 전통문화에서 물려받은 인본주의 인습의 잔영일 수 있다. 어쨌든, 실용주의 혹은 과학적 도구주의는 미국의 위대한 전통이며 언어교육 부문에서도 혁혁한 공적을 발휘한 셈이다. 이 실용주의 혹은 도구주의의 가장 큰 그늘은 어법의 보편성에 일방적으로 경도되어 언어의 텍스트성의 자원을 지나치게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 III. 문제의 단서를 구하는 설문

우리나라 중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읽기교육에 관한 바른 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단초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필자는 일단 일련의 모색을 위한 설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목별 분류는 임의적인 것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이후에 전망이 설 것으로 보이는 설문도 있고, 교육에 대한 이해와 소신을 전제로 가타부타하는 큰 방향의 갈래는 쉽게 판단을 내릴 항목도 있을 것이다.

1. 영어 혹은 일반 언어교육에서 '읽기'로 지칭되는 학습관심은 이른바 4기능 개념으로만 포섭되는 것인가?
2. 영어는 배워야 할 단순한 외국어일 뿐인가? 얼마만큼 한국인의 언어 생활의 일부인가? 얼마만큼 시민 소양교육의 일환인가?
3. 영어의 읽기학습은 국어의 읽기학습과 그 목표와 실천에서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가? 어문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얼마간이라도 서로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4. 나아가 타 교과, 예를 들어, 사회, 역사, 과학 교과도 '읽기'에 크게 의존함이 분명한데, 영어의 읽기 학습은 이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며 어떤 형식의 관련인가?
5. 영어가 전체 교과과정의 일환이라는 여건은 영어 읽기교육의 교재 개발과 기타 교과과정 정책의 수립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특히 학생 입장에서 생각할 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점은 없는가?
6. 영어 읽기교육은 절대적 언어기술의 제고만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회목표도 가지는 것인가? 비근한 예로, 대학수학이나 사회활동의 역량을 지원하는 목표도 가지는 것인가? 이것은 읽기 자료 선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7. 영어 읽기교육은 문해개발(文解, literacy development)과 같은 사회교육의 과제와 교섭하는 부분이 있는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양자는 별개의 것인가?

8.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의 학교교육 영역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육과제가 인문적 소양인데, 영어는 확연히 다른 어문계 과목과 함께 이 범주에 들면서도 지금까지 그 위상이 모호하였다. 기능 위주의 목표설정으로 내용적으로 무관하여 보였기 때문이다. 영어 읽기교육은 인문소양 부문에서 일정한 몫의 교육목표를 가지는가?

#### IV. 진단을 위한 척도와 원칙들

영어교육의 전반적 여건과 성과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이게 향상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읽기 부분도 어느 면에서는 아마 그러할 것이다. 현행 교재 개발 제도인 검인정 교과서의 면모로 미루어 보아도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교과서들이 지침의 세부에 부응한 결과인지 천편일률로 비치는 면도 있어 보인다. 읽기 교육의 내용이 굳이 교재의 외양으로 판별된다고 단언할 수는 물론 없다. 교재의 내용과 별도로 영어 수준의 일정한 향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읽기교육에서 앞서 이야기한 텍스트성 개발 부분은 질적인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본적으로 아래의 척도에서 수정의 여지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 영어 읽기교육도 여타 과목이나 과제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생, 교사, 교육목표, 교재, 사회 등의 기본 교육활동 구성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실현된다.
2. 영어 읽기교육도 사회와 학생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영어 읽기텍스트는 해독용 '외국어'이기에 앞서 살아 있는 언어문화의 반영이고 실현이다.
4. 교재로서의 읽기자료는 단순히 언어기능 학습을 위한 자료의 일방통행적 성격을 벗어나 참여, 활동, 표현을 포섭하는 텍스트이어야 하고 때로는 그 자체로서 문화(학)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5. 교육활동 구성 요인의 일방인 학생에 관하여 특히 주목할 사항은 이것이다. 즉, 학생은 영어와 동시에 타 교과를 학습하고 있으며,

학생의 영어 읽기 학습에서 활용될 소양과 동기는 당연히 영어외의 교과 교육에서도 온다. 배경지식과 학습동기의 형성과 차후 진학 혹은 취업에 관한 전망 등이 그러한 예이다.

6. 학생의 학습동기와 배경지식은 읽기교육의 학습과 교재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다. 특히 국어과 교과목에 속한 텍스트 자료 혹은 내용 자료 중 일부를 적절히 써서 비록 제한적 의미로서나마 통합 어문교육의 개념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7. (영어)교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역량과 소양을 갖추는 것이다. 이것을 교사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 소양 중에서 인문소양은 특히 중요하며 텍스트 읽기 교육을 돕는다.
8. 사회는 영어 읽기학습을 포함하는 학생의 모든 학습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응과 시민자질 함양에 전면적으로 부응하기를 기대한다. 그 기대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진학, 취업, 시민소양, 국제화환경 등을 들 수 있는데, 역시 영어 읽기교육을 위한 텍스트 개발의 자원이 될 수 있다.

## V. 제안 몇 가지

1. 위에서 밝힌 바대로 영어를 단순히 완성도를 높이는 외국어 과제로 국한하는 입장을 약간 수정하여, 중등학교 영어 읽기교육의 위상을 공동목표를 가지는 어문교육의 일환으로 상정할 수 있다. 또 전반적인 교과과정과 부분적으로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용을 교류하는 통교과적인 유기적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교재개발의 한 가지 대안적 방안이 될 수 있다.
2. 우리나라 영어교육에서 읽기 학습은 현실적으로 불가불 최고의 비중을 가진다. 영어가 무제한으로 동원, 활용 되는 유일한 가상적 대리언어사용 공동체 (substitute language community)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처지에서는, 특별히 조직된 특수 프로그램 (immersion program과 같은)을 제외하면 독서의 영역이 영어를 연

마하는 유일한 사회공간일 것이므로 영어교육에서 ‘읽기’는 불가불 거의 유일한 특권적 지위를 누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모든 나라의 모든 어문교육의 특성이며, 영어의 읽기교육도 나라의 어문교육의 일환으로 파악하게 하는 한 가지 근거이기도 하다.

3. 영어 읽기텍스트는 언어 형식에서 물품의 사용설명서처럼 ‘지시’하고, 생물학교과서처럼 이를 통하여 ‘학습’고, 편지나 신문기사처럼 ‘이해’하고, 문학작품처럼 ‘감상’하고, 드라마처럼 ‘참여’하는 면모를 전방위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이중 지시, 학습, 감상, 참여의 텍스트가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Gorlach 1999참고). 또 영상과 같은 대안 텍스트의 동원도 필요할 것이다.
4. 학생이 처한 학교와 사회의 언어 환경이 좀더 충실히 조직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에서 쇄도하는 온갖 외래 용어 요인, 혼성 텍스트(국문과 영문이 병용된 경우, 국문 텍스트에 영문요소가 섞여 있는 경우, 등), 동아시아 이웃나라의 언어문화 환경 등이 사례이다.
5. 언어는 수용과 표현의 두 측면이 있는데, 학생이 내 자신의 문화(한국과 한국을 위요한 동아시아를 특히 그 중심으로 함)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영문 저술이나 번역을 동원할 수 있다. “남이 나를 보듯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문으로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확인하는 읽기 텍스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한국문학을 영문번역으로 읽기와 외국인이 한국에 관하여 쓴 글을 읽기가 있을 것이다. Isabella Bird Bishop 한국 풍물기, 피터 현 번역 한국 근현대 시, 에카르트저, *A Short History of Korea*, Zhang & Wei 편 *100 Tang Poems*, Tagore, *Gitanjali*, 등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6. 타 교과 교과과정에 반영된 수준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의 문학 내지 문화적 산물을 읽기텍스트에 정당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등학교 18종 ‘문학’교과서(7차)에 실린 해외 작가의 글은 총 77편에 이르며, 릴케, 베를렌, 프로스트, 스위프트, 생고르, 두보, 헤밍웨이, 등등을 포함한다. 영미 출전이 아닌 것도 영어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7. '지시'하고 '학습'함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를 사회의 필요와 타 교과목 과정을 분석하여 일정수준 정당하게 반영한다.
8. '고전'이 일부 소화되는 배려가 필요하다
9. 실험적으로 위 (4), (5), (6)과 관련하여 협동적으로 어문교육세션을 위한 텍스트를 개발하여 공동 경영하는 등의 대안적 실험을 하여볼 가치가 있다. 일례로, 여러 교과목의 교사가 연합하여, Bird Bishop을 국문(교과서에 이미 실림), 영문으로 읽고, 관련된 역사와 지리를 국문과 Eckart의 영문으로 읽고, 영상 텍스트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과 같다.

## V. 마무리를 대신하는 인용 몇 가지

우리나라가 너무 심하게 읽기를 격하하고 구화위주 접근을 선양하는 추세는 아직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제는 그 수정의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병민 교수의 보고에 의하면 청소년기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어 중심의 영어교육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실제로 내국인 교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영어 노출의 기회는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 체계나 내용 면에서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사소통중심의 구어 영어에 대한 체계적인 노출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이병민2003). 이와 같은 현황은 아마 사회운영상 정상의 상태라 할만 한 것이다. 읽기교육의 상대적 현실적 위상을 확인하는 보고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맹자에게도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 인용한다.

孟子: 만일 여기에 楚나라의 대부가 있어서 그 아들이 제나라 말을 배우도록 하고자하면 齊나라 사람을 시켜서 그를 가르치게 할 것입니까? 초나라 사람을 시켜서 그를 가르치게 할 것입니까?

戴不勝: 제나라 사람을 시켜서 그를 가르치게 할 것입니다.

孟子: 제나라 사람이 혼자 가르치고 초나라 사람 여럿이 그에게 떠들어댄다면 비록 매일같이 때리면 그가 제나라 말을 하도록 요구할 지라도 그것

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를 잡아다가 수년 동안 제나라의 莊, 嶽 거리에 놓아둔다면 비록 매일같이 때리면서 그가 초나라 말을 하도록 요구할지라도 그것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맹자, 藤文公章句)

읽기교육의 개선을 본고에서 다소 인문소양 내지 문학적 시각에서 살펴 보았는데 입장이 무엇이든지 경계하여야 할 일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론의 외양적 적정원리가 개인 및 개별 문화의 여건 및 전통과 창조역량의 우위에 올 수 없다는 평범한 진실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비판한 미국적 도구주의 심리학의 고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고를 새겨둘 만하다.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 심리학은 정신의 법칙에 관한 과학이니까 이 학문으로부터 교실에서 즉각 쓰일 어떤 확연한 교육상의 프로그램이나 장치나 방법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오, 매우 중대한 과오입니다. 심리학은 과학이고 가르치는 일은 기예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에서 기예가 저절로 직접 나오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양자 사이에 개입한 창의적인 정신이 자신의 독창성을 발휘하여 응용을 하여야 합니다(Skinner 1988 재인용).

## 참 고 문 헌

- 이병민. (2003).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청소년기 구어영어 노출 경험” (발표원고).
- Allen, Harold B. (1965).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 Book of Readings*. New York: McGraw-Hill.
- Barnet, Sylvan. (2003). *Literature for Composition*.
- Barthes, Roland. (1975). *The Pleasure of the Text*.
- Day, R.R., and J. Bamford. (1998). *Extensive reading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 Gary Tate (ed). (1965). *Reflections on High School English*,
- Gorlach, Manfred. (1999). *English in Nineteenth Century England*.
- Grabe, William and Fredricka L. Stoller. (2002). *Teaching and*

*Researching Reading.*

Harkin, Patricia. (1999). *Acts of Reading*,

James, William. (1899). *Talks to Teacher on Psychology.*

Marianne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3rd),

Raymond, James C. (ed). (1996). *English as a Discipline or, Is  
There a Plot in This Play?*

Skinner, B. F. (1988). *The Technology of Teaching.*